

PGE₂는 급성신부전에 대하여 방어적 기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 14 -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혈중 지질치 변화

서울외대 내과

이상구 · 이종호 · 안규리 · 최병휘
한진석 · 김성권 · 이정삼 · 이문호

임상병리과

김진규 · 조한익

감염증에서의 혈중 지질치의 변화는 원인균의 종류, 감염의 정도 및 기간, 환자의 영양상태 및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는 혈중 지질치 변화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혈중 지질치 변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혈중 지질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발병초기에 감별해야 될 질환중의 하나인 뱀토프라페의 혈중 지질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감별진단의 유용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와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한 한국형 출혈열 환자 54명과 뱀토프라페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혈중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치를 측정하고 지단백전기영동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중 cholesterol 치는 한국형 출혈열과 뱀토프라페에서 제10병일까지 각각 154.86 ± 33.2 , 114.77 ± 26.28 mg/dl(평균 \pm SD)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혈중 cholesterol 치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2) 혈중 triglyceride 치는 한국형 출혈열과 뱀토프라페에서 각각 300.6 ± 199.08 , 244.21 ± 126.35 mg/dl로 정상치보다 증가한 상태이며 두 질환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triglyceride 혈중치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 혈중 HDL-cholesterol 치는 한국형 출혈열과 뱀토프라페에서 제10병일까지 각각 20.37 ± 7.77 , 11.4 ± 6.88 mg/dl로 정상치보다 낮아져 있으며 두 질환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HDL-cholesterol 치는 발병 초기에 평균 $15 \sim 25$ mg/dl의 범위에서 유지되다가 제16병일 경부터 현저하게 증가되어 회복되었다.

4)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지단백전기영동의 변화는 발병초기에 β -지단백의 현저한 증가와 동시에 α -지단백의 감소가 특징적으로 보이며 제11병일 경부터 정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pre β -지단백도 발병 초기에 증가하나 병의 경과에 따른 특징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국형 출혈열에서의 혈중 지질치 및 지단백전기영동의 변화 양상은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냈으며 발병초기에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치의 측정도 뱀토프라페와의 조기 감별진단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15 -

韓國型 出血熱의 死因分析

서울醫大 內科

金大重 · 吳夏英 · 李正相

翰林醫大 內科

朴 正 植

韓國型 出血熱은 血清學的 診斷法 및 자세한 臨床像이 알려지게 되면서 早期에 診斷되고 病態生理에 따른 適合한 治療를 하게 되어 致命率의 減少는 물론 死因과 死亡時期에 있어서도 變化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最近 여러 報告者들이 이 疾患의 死亡率, 死因, 死亡時期 등이 과거에 비하여 다른 樣狀을 보임을 관찰하여 온 바 있어 이에 演者들은 韓國型 出血熱의 主要死因 및 死亡時期의 變化를 살펴보고자 1979年 3月부터 1985年 12月까지 서울大學校病院에 來院하여 典型的인 臨床像 혹은 血清學的 方法으로 診斷된 韓國型 出血熱患者 255名中 死亡한 16例의 臨床의 考察을 시행하여 다음의 成績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同期間中 韓國型 出血熱의 死亡率은 6.3%였고 死因은 原發性 shock, 肺出血과 浮腫, 腦卒中이 각각 4例, 敗血症 3例, 續發性 shock 1例였다.

2) 上記 16例의 病期別分布는 利尿期 7例, 低血壓期 5例, 乏尿期 4例였고, 各 病期別死因은 低血壓期에 原發性 shock, 肺出血, 乏尿期에는 肺出血과 浮腫, 腦出血, 利尿期에는 腦出血 및 敗血症, 續發性 shock, 肺出血이었다.

3) 發病日로부터 死亡까지의 時間은 1週이내, 1~2週사이, 2~3週사이, 3~4週사이, 4週이상인 각각 4例, 8例, 2例, 1例, 1例로 發病 1~2週사이에 死亡한 例가 가장 많았다.

4) 入院期間에 따른 死亡者數 및 死因은 7例(44%)가 入院 24時間內에 死亡하였으며, 原發性 shock은 全例가 入院 48時間內에 死亡하였다.

5) 年齡分布에 따른 死亡者數 및 死亡率은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70세가 각각 3例(死亡率 6.3%), 4例(死亡率 5.9%), 7例(死亡率 13.7%), 1例(死亡率 6.3%)로서 51세~60세 사이에 死亡率이 가장 높았다.

— 16 —

우리나라 투석요법의 현황

대한신장학회

조사책임 : 방 병 기

1985년도부터 전국의 투석요법을 시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 환자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 자료수집이 늦어졌으나 보내는 자료만을 중심으로 일부 보고를 하고 자료가 모두 수집되는 대로 최종 보고를 하고자 한다. 전국의 26개 병원에서 자료를 보내 왔으며 1985년도의 신환자 수는 혈액투석 370명(남자: 214명, 여자: 148명), CAPD 70명(남자: 46명, 여자: 22명)이었으며 1985년 12월 31일현재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혈액투석 704명, CAPD 138명으로 나타났다. 신장이식 환자수는 23명으로 밝혀졌으나 자료수집이 불충분한 관계로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 17 —

혈액투석환자 및 신장이식환자에서의 Cytomegalovirus 감염

한양의대 내과

김흥근·박찬현·강종명·박한철

Cytomegalovirus(CMV)는 Herpes virus group에 속하는 DNA virus로서 정상인에서는 대부분 불활성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있어서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신장이식환자에 있어서는 수술후 1년 이내에 60~90%의 높은 감염율을 보이며 발열, 백혈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식신의 생존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연자들은 혈액투석환자 및 신장이식환자에 있어서

CMV 감염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1차 연구로서 정상대조군과 혈액투석환자, 신장이식환자에서 ELISA 법을 이용하여 CMV IgG 항체와 CMV IgM 항체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MV IgG 항체: 정상대조군 40명중 39명, 혈액투석환자 54명중 전부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2) CMV IgM 항체: 정상대조군 100명중 양성인 예는 없었고 혈액투석환자는 85명중 4명(5%), 신장이식환자는 25명중 2명(8%)이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3) CMV IgM 항체의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면 30대에서 2명, 50대에서 4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성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모두가 CMV IgG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2) 따라서 혈액공여자나 장기공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CMV IgG 항체 측정은 의미가 없다.

3) 노독증환자나 신장이식환자에서의 CMV 감염은 일차감염은 없고 모두 재활성화(reactivation)에 기인한다.

4) 향후 전향성연구(prospective study)를 통해 신장이식환자에서의 CMV 감염이 발열, 백혈구감소, 이식신 수명단축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 18 —

당뇨병성 신부전증의 CAPD 치료 성적

순천향의대 내과

오상권·황승덕·이희발

당뇨병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심혈관계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병율 및 사망율이 더 많다. CAPD는 혈액투석에 비하여 심혈관계 부담이 적고 혈당조절이 용이하므로 당뇨병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자들은 1981년 3월부터 1985년 12월말까지 CAPD를 시작한 환자 208명중 당뇨병성 신부전증 환자 19명의 CAPD 치료성적, 환자생존율과 기술 생존율을 조사하여 비당뇨군과 비교하고, 혈당조절 성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전체 CAPD 환자는 208명으로 남자 149명, 여자 59명, 평균나이는 41.3 ± 11.9 세이었으며, 이중 당뇨군은 19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6명, 평균나이는 52.7 ± 9.1 세로 당뇨군에서 평균나이가 현저히 많았다($p < 0.001$).

2)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질환은 만성사구체신염 43.3